

목포시의회 제13회 회의록

1. 일 시 : 단기4286(1953)년 1월 19일 오전 12시 20분

2. 장 소 : 의회 의사당

3. 개의성립:

1) 참석의원:18명

유정두, 이소규, 이복주, 명남철, 김삼성, 김남진, 진복춘, 임일남, 김팔용,
이문길,

정응표, 김길환, 김경희, 박찬규, 김채용, 김자홍, 오세일, 김영완 의원

2) 불참의원:3명

이재홍, 김경현, 문택호 의원

3) 참석한 자치단체의 직원

안경호 부시장, 양회경 공보계장, 이민호 회계계

4. 의사일정표:

1) 보고사항:

(1) 제12회 임시회의 회의록

(2) 제11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3) 삼학도 제방공사 추진상황의 건

(4) 용당도선 매표권 이양에 관한 타합회의 회의록

(5) 청과물 도매시장 설치 추진상황의 건

2) 부의안건:

(1) 단기4285(1952)년도 목포시 동정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개정 예산의 건

(2) 시유재산 처분에 관한 건

5. 개회선언

의장

(오전 12시 20분)

6. 개 회 식:

- 1) 개회사 : 간사
- 2) 국민의례
- 3) 의장인사
- 4) 폐회사 : 간사

7. 토의사항:

◇간사 조 운 용

- 제12회 임시회의 회의록 낭독

◇의장 유 정 두

- 방금 낭독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면 수리 하겠음

◇서기 박 찬 대

- 제11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낭독

◇의장 유 정 두

- 삼학도 제방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중앙요처에 절충한 경과보고가 있었음(속리록 참조)

◇김 채 용 의원 (긴급동의)

- 1. 자치제 실시이래 처음으로 제1기 중책의 맡은 일행이 성심성의 노력한 결과 건설국 김이사관이 내목하였고,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조상에 놓고 분과위원회에서 토의하게 되었음은 하 시장, 유 의장, 지사의 많은 수고 덕택으로 의원은 물론 시민 전체가 사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는 목포시의 존폐문제가 달려 있으므로 중앙에 관심을 인식시켰고 계속해서 이 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제1차로 중앙 관계 당국에 건의를 할 것이며, 건의문 작성에 있어서는 각 기관을 망라하는 건의문과 시민 전체의 결의에 의한 건의문을 작성할 것

- 2. 급속한 시일내에 의회 대표를 파견할 것
- 3. 건의문 작성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면을 착안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일임하고 사회 단체에 보내는 건의문은 유 의장과 오

세일 의원에게 일임해 급속히 작성하여 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 해사위원장, 국회의장에게 보내고 또한 10여통을 가지고 만나는대로 명함과 같이 상세히 소개하자 긴급동의(재청)

◇정 응 표 의원

- 이 문제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신 임기봉, 김준의의원에게 감사문을 보낼 것이며, 그리고 외자가 목포의 경우 하양작업 불가능으로 배당되지 않았다는데 거반 목포서도 4시간 동안에 1,100톤을 하양할 수 있는 실적이 있으니 이 문제도 외자청과 제1기지사령부에 건의할 것을 김채용 의원의 동의에 첨가

◇의장 유 정 두

- 외자 도입문제는 삼학도 제방문제와 혼용해서는 곤란하니 이 문제는 차 후에 하면 좋겠다.

- 건의문을 내무부장관, 해사위원장, 국회의장, 지사에게 격려문을 임기봉, 김준의 의원에게(재무부장관은 제외) 보내기로 하고, 건의문 작성은 행정부에 일임해서 시장과 의원이 출장시 가지고 가도록 하자는 긴급동의에 대하여 가부를 묻겠음

- 재석의원 16명 전원 가결

◇서기 박 찬 대

- 용당도선장 대표권 이양에 관한 타합회 회의록 낭독

◇이 복 주 의원

- 시에 납부할 율에 있어서는 전체 회의에서 매일 대표수에 대하여 비율을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45만원의 고정적 숫자는 작년도 통계숫자에 의해서 산출되어 있어 의회에서 의결한 것과는 배치되어 있으니 어떠한 내용인가 행정부에 묻고 싶다.

◇김 채 용 의원

- 동의안의 내용은 비율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일임키로 되어 있어 45만원의 산출은 작년도 통계숫자에 의해서 시장이 한 것이니 의회에 배치되지 않는다.

◇김 삼 성 의원

- 지금까지 시수입으로서 용당도선장에서 들어온 예산과 45만원으로 된 예산의 차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기 바람

◇간사 조 운 용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속기록 참조)

◇진 복 춘 의원

- 계약 내용에 배치되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이대로 하면 좋겠다.

◇의장 유 정 두

- 청과물 도매시장 설치 추진위원회 활동 경과보고(속기록 참조)

◇진 복 춘 의원

- 청과물 도매시장 설치 건에 대하여 오늘 타합을 보았으나 아직 확실한 결과를 보지 못했으며 명일 결과를 보아 다음 의회에서 가부를 결정하자.

◎ 단기4285(1952)년도 목포시 동정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개정 예산의 건

◇정 응 표 의원

- 본 예산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측에서 설명해 주기 바람(동의)

◇진 복 춘 의원

-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했으니 위원회에서 삭감 수정한대로 통과할 것을 개의하다.

- 재청에 이어 3청이 있었다.

◇정 응 표 의원

- 동의를 취소하고 개의에 재청하나 앞으로는 징병, 징용시의 경비를 동민에게 각출 않기로 할 것을 첨가해 수정안대로 통과하자

◇의장 유 정 두

- 본 예산안 통과에 대하여 가부를 묻겠음
- 재석의원 16명 전원 가결 수정 가결

◎ 사유재산 처분에 관한 건(줄포환-茁捕丸)

◇간사 조 운 응

- 별지 이유서에 의하여 설명이 있었음

◇진 북 춘 의원

- 본 건은 사무당국에 일임하자

◇정 응 표 의원

- 원안대로 처분할 것에 동의하며, 처분 방법에 있어서는 경쟁입찰제로 할 것이며, 모든 절차에 있어서는 행정부에서 일임할 것을 동의(재청)

◇의장 유 정 두

- 가부를 묻겠음.
- 재석의원 13명 중 가 12, 기 1, 원안가결

◇정 응 표 의원 (긴급동의)

- 수도 시설이 불비된 산정동, 죽교동에 빨리 시설할 것을 전제로 거반 수특추가 경정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아직 착수할 기색이 없으니 행정부에서 답변해주기 바람

◇간사 조 운 용

- 2월 상순까지 착공하겠다는 설명이 있었음

◇의장 유 정 두

- 회의록 서명에 진복춘, 김채용 의원을 지명

8. 폐회선언

유 정 두 의장

(오후 3시 10분)

9. 폐 회 식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에 서명 날인함

단기4286(1953)년 1월 19일

의장 : 유 정 두

의원 : 진 복 춘

” : 김 채 용

작성자 서기 : 천 세 봉

제13회 목포시의회 속기록

◇의장 유 정 두

- 지금부터 제13회 임시회의를 개최하겠는데 오늘은 동정세, 삼학도 매축 문제, 도선장 문제, 청과물 도매시장 문제 등에 관한 보고가 있으니 모두 신중히 검토하여 주십시오.

◇간사 조 운 응

- 제12회 임시회의 회의록 낭독

◇의장 유 정 두

- 이의없으면 수리하겠습니다.(전원통과)

◇서기 박 찬 대

- 제12회 내무분과위원회 회의록 낭독

◇임 일 남 의원

- 내무분과위원회에 참석하였는데 불참이라 함은 오기가 아닙니까?

◇서기 박 찬 대

- 이것은 참석을 불참이라 읽은 것인 바 잘못된 것이므로 수정하겠습니다.

◇의장 유 정 두

- 방금낭독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수리하겠습니다.(전원통과)

- 삼학도 문제와 외자 도입에 대한 문제는 중앙에 보고하겠습니다.

- 지난 9일 목포를 출발하여 먼저 내무부 건설국 항만과장을 만나 재정면을 타협하였는데, 첫째는 국가 예산에서 보조를 받을 것인가, 둘째는 단기 4286(1953)년 국회에서 결정된 추가예산을 보조 탈가하여 여러 가지 수단으로 전법해 사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 그 다음 운크라의 자금에 관하여는 내무부에 돌아온 돈이 3백억인데 다른 곳에 다 사용하고 사무국에 남은 돈이 100억원으로, 이 돈은 충청남도

장항으로 돌린다고 합니다. 또한 충청도 출신들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에서도 이 기회에 이사관을 만나기 위하여서는 원호작전술을 쓰지 않으면 안될 것 같기에 목포 출신 국회의원 임기봉씨와 전라남도 국회의원들을 만나 여러 가지로 작전술을 연구하고 또는 정치정세에 비추어 김풍기 의원을 내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또한 위원회를 찾아가지고 신성모 씨를 움직여서 강력히 추진할 것을 결정하고 우리와 같이 갔던 양기자도 많은 염려를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일행은 이 기회에는 별일이 있더라도 보조를 해서 삼학도 매축공사를 성취함으로써 우리 목포 시민이 사냐 죽느냐는 것이 결정될 것이므로 우리들은 오늘 의회에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여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는 자유당, 정당사회단체 등에 건의문을 작성하여 13만 시민의 총 열의를 보인다는 의도에서 중앙 내무부 기타 요로 등에 제출하는 것이 어떠할까 생각하며, 또한 내무장관은 마침 창경호 사건으로 말미암아 출장중이므로 부관을 만나서 구체적인 타협과 보고를 하였더니 그것은 건설국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만 하여 준다면 우리 내무부에서는 승인을 할 것이라 하기로 건설국 이사관과 함께 시장님은 실지 조사를 하기 전에는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여서 실지 이사관을 모시고 와서 현지를 본 다음 확답하여 결정을 짓기로 하고 시장님과 같이 왔다가 또 다시 부산으로 가기로 하였는데 부산에 와본즉 시장님은 가지지 않고 이사관만 상부하였는데 여기에 내용을 들어본다면 확답을 하신 모양입니다.

- 이런 점 저런 점으로 보아서 가능성이 농후하며, 내가 직접적으로 내무부장관에게 말씀드리기를 우리 목포항이 폐항됨으로써 전남의 문호인 항구에 미친 영향이 막대할 것이며, 300만 도민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내무부장관에게 역설하였던 바 내무부장관 하는 말이 험박공갈하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 그리고 전라남도 출신의 국회의원들을 만나 우리 3백만 도민을 위하여 이 문제에 관하여 노력하여 달라고 말하였으며, 각 장관들을 만나 국회에서 통과 바란다면 그대로 일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임기봉을 비롯한 전남 출신의 국회의원들을 보고 말하였더니, 본인들이 긴급동의하여 상임분과 위원회에 회부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 자유당 간부로 있는 김준의씨가 업무부장 하고도 통하고 있고 내무부는 물론이며, 또한 투쟁가로서 목포에 계실 때부터 하 시장하고는 잘 알고 목포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이니 같이 추진함이 더 통할 것 같기에 이야기를 하

였던 것입니다.

- 그 다음에는 씨를 만났는데 건설국장과 인천에 출장갔다가 오는 몇 시간 후에 만나서 사실을 이야기하였던 바 잘 알았다고 말하면서 창경호 사건으로 말미암아 좀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는 것을 본즉 건설국에는 상당히 통하고 잇는 모양입니다.

- 그러므로 결국 골자는 첫째, 군산항의 축강을 하고 남은 것을 장항으로 줄 것이 아니라 우리 목포의 발전을 위하여 주라는 것인데 실지가 장항은 명년에 해도 별 지장없을 공사이온데 우리 목포에는 진도간의 왕복 객선이 못 다닐 형편이므로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목포에 먼저 돌릴 수 있도록 하고 시장님은 이사관을 모시고 또다시 상부하여 확답을 듣기로 하였던 것인데 이사관만 상부하였으나 확정적인 말씀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우리들은 앞으로 중앙이나 국회에 가서 목포문제를 초당파적으로 투쟁을 계속하지 않으면 행복과 복리는 가져올 수 없으며,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중앙이나 국회에 이처럼 관심을 가지고 활약을 한다면 중앙에서도 미칠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므로 하루 속히 시장하고 우리 의회에서 누구든지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를 중앙에 파견하여 이사관, 건설국장, 항만과장과 타합하여서 36억이라는 예산을 타오도록 교섭하며, 건의문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거기에 대하여서는 강선명씨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 그 다음은 외자 도입에 관한 문제인데 첫째, 목포 사람들은 열의가 부족하다고 하며, 임기봉씨와 직접 사회부를 방문하여 목포항의 도입물자가 다른 항구에 비하여 뒤떨어진다는 말을 하였더니 사회부에서는 항구의 지정권은 없고 상관이 없다고 하기로 외자청에 방문하였던 바 외자청장의 말이 목포항은 지리적 조건이 나쁜 것이,

- 첫째는 항만시설 불비로 선박 출입이 자유스럽지 못하다.

- 둘째는 만톤 이상의 선박이 목포 항구에 출입할 수 없다.

- 셋째는 유분 관계가 여의치 못하여 다른 항구에 비하여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말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목포는 여수나 인천 항구 보다도 수심은 얕다 할지라도 목포항에도 한계를 2개로 나누면 여수나 인천항 보다는 선박 만톤이상이 출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수송 관계에 대하여서도 호남의 문호이기 때문에 다른 항구보다도 생각된다고 상세한 말씀을 드렸더

니 앞으로 특히 고려하겠다고 말씀하였기에 앞으로 우리 목포항에도 외자 물자의 입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그 다음에는 중앙의 여론 환기인데, 지방자치법이 실시된 이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의 지방자치 행정을 본다면 종전의 관치행정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지방자치 행정을 위한다면, 여론을 환기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사권 등의 문제인데 시, 읍, 면장에게 일임하여야 할 인사권을 중앙에서 발령할 정도니 대단히 곤란한 점이 많고,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을 확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재정고갈로 인하여 곤란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또한 이런 것도 사무 한계로 보아서 도나, 중앙이나, 심계원 등의 고유사무는 별도이러니와 지방 행정에는 다소의 수정을 요할 필요가 있사와 여론을 말하였던 바 앞으로 이러한 점이 다소의 수정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 거기에 비추어 앞으로 우리 목포시에서는 지방 시민의 복리를 위하여서는 중앙에 가서 10억을 가져오는데 경비가 막대한 지장이 있더라도 활약을 부탁하오며, 한 예를 들면 파괴된 잔교 수리비 등으로 1억 5천만원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와 있는 모양인데 활약 여하에 있어서는 1억원 쯤은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되온 바 우리가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으므로 이런 정도는 인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김 채 용 의원

- 방금 삼학도 매축 통과문제에 대하여 중앙에 절충 보고를 하였는데 우리 의회로서 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건설면에서 중앙으로 제1회 교섭을 가서 상당히 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 그의 증거로써는 직접 건설당국의 김 이사가 목포에 와서 현지를 시찰하고 가셨고, 또 그 외에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조상에 놓고 분과위원회까지 소집하였다는 것을 볼 때에 이로 보아서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이번에 하 시장, 유 의장, 전라남도 이 지사 등 많은 노력을 하여왔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이번에도 삼학도 매축문제가 완수된다면 제1회 때의 교섭한 사람들에겐 비라도 세워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쇠는 불달았을 때 휘어야 한다는 말처럼 이 공사에 대하여서 도나 중앙에서 인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서도 계속해서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혹은 우리 시민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도 앞으로 매축공사가 무엇보다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므로 우리들은 삼학도 매축공사에 대하여 중앙이나 요로 당국에 건의문을 전달할 것을 우리 의회 뿐만 아니라 시민의 총망라한 건의문을 작성하고 뒤따라서 하 시장과 우리 의회대표로 하여금 급속히 중앙에 파견하여 돌격대의 역할을 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 기술적인 면에 착안하여 의논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회 등을 조직한다 함은 시일이 요할 것이므로 나의 의견으로 하여서는 시장국의 시장님에게 건의문을 작성하도록 일임할 것과 건의문은 사회단체, 정당 등에서 하기로 하고 유 의장하고 오세일 의원, 기타 2, 3명이 타협하여 일반 시민의 건의문을 작성하여 이번에 하 시장님이 중앙에 가시게 되는 편에 상달해야 합니다. 내무부장관, 해군위원장, 재무부장관, 국회의장 등에 제출할 것과 그 밖에 10여통을 긴급히 작성하고 시장과 의원을 급속히 중앙에 파견할 것을 긴급동의합니다.

◇정 응 표 의원

- 방금 김채용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찬동합니다.

- 목포시 발전을 위하여서는 계속해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번 삼학도 매축문제에 관하여서 임기봉의원과 자유당 김준의의원 등에는 별도로 감사문을 작성하여 별도로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또한 외자도입에 관하여서는 삼학도 공사가 완수된다면 별 문제이지만 현재로 보아서도 한계를 내린다면 만톤급 이상의 선박이 출입할 수 있으며, 다른 항구보다도 하양작업도 민활하다고 생각됩니다.

- 지난번 실례를 본다 하더라도 부산보다도 목포항에서 1일 동안에 1,100톤이라는 하양작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 그런 예를 보더라도 타항에 지지않는 조건이 구비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우리 목포 항구에도 외자 불자가 많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에 있는 제2기지 사령부에도 건의문을 제출할 것을 김채용 의원의 발언에 첨가하여 말씀드립니다.

◇의장 유 정 두

- 그 의견도 좋습니다마는 외자도입 문제에 관하여는 이 다음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왜냐하면 외자도입 문제와 삼학도 매축문제가 상반되므로 먼저 삼학도 관계를 해결하여 놓고 1개월 후라든지 하여서 별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러므로 이 외자도입 문제는 이번에 출장가시는 분들이 별도로 교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할까요?

- 건의문을 작성하여 전달할 것과 임기봉하고, 김준의하고, 전라남도 지사 또는 이사관에게 건의문이나 감사의 전보라도 타전할 것을 행정부에 일임하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그럼 가부를 묻겠습니다. 전원 통과하였습니다.

◇정 응 표 의원

- 1일에 1,100톤을 하양할 수 있는 목포항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삼학도 공사도 좋다고 생각하오나, 이번에 출장가실 때에 서류는 별도로 작성하여 가지고 가 외자청, 제2기지 사령부, 교통부하고 별도로 보냄이 어떠할까 생각합니다.

◎ 용당 도선장 매표권 이양타압 결과 보고의 건

◇서기 박 찬 대

- 회의록 지참 결과 보고가 있었음

◇이 복 주 의원

- 연일 회의석에서 논의되었던 용당 도선장 관계에 대해서 번영회와 계약서가 체결이 있는 계약서의 내용을 보니까 먼저 회의석에서 매표권을 청구하는데 개의집에서는 1년을 통하여서 계산한 시수입에 지장이 없이 하라는 개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도선장 매표의 동의를 성립되어 그대로 실행하기로 한 것인데 1일 345만5천원으로 된 것은 어떠한 근거이며, 또한 개의회 동의가 상반되므로 행정부에 묻고자 합니다.

- 그리고 시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옹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어떠한 결과에서 이렇게 하였는지? 명확히 하여 주십시오.

◇김 채 용 의원

- 지난 의회에서 도선장 문제에 관하여 동의의 골자는 기준을 어디다가 두든지 간에 모든 것은 3인 1체만 된다면 거기에다 일임하였던 것입니다.

- 그러므로 시재정이 단축된 것이 아니고 1일 45만5천원이라는 것은 1년간을 통한 부동한 숫자이며, 전반 의회에서 토의한 결의에도 상반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복 주 의원

- 1일 45만5천원이라는 돈은 1년 평균을 본다면 시재정에 부족합니다. 그것은 선박 사고가 나면 수선비며, 거기에 종사원, 부수되는 직원이 몇 사람이며, 1일에 소비되는 기름대 등 이런 것을 계산하며 적자가 되는데 계약서의 체결 내용은 어떠합니까?

◇김 삼 성 의원

- 작년도에 시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 운 용

- 단기4285(1952)년도의 수입이 9천만원이었습니다.

- 그러나 우리 목포시 세입만 생각한다면 번영회나 경찰서에서도 수입이 있어야만 운영할 것 아닙니까?

◇이 복 주 의원

- 제7조를 보면 정원 이상을 실고 선박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을이 그 책임을 진다고 하여졌는데 수입이 다소를 불문코 45만5천원을 내놓고 상대방인 번영회에서 변상할 돈이 있을까 의심됩니다.

◇진 복 춘 의원

- 도선장 건에 대하여는 전반 의회 때에 시장님에게 일임하기로 하였으니 그대로 합시다.

◎ 청과물 도매시장에 관한 건

◇의장 유 정 두

-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며, 또한 자금 문제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절충하여 우리 시 직영으로 하여서 시민에게 부담을 적게 할 것인가를 여러 각도로 연구도 하여 보았습니다.

- 우리 목포시에서는 재정 문제로 어찌할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분과 위원회에 회부하였던 바 결국은 현금 2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필요하므로 일시에 지불키가 곤란함에, 있는 회사측으로 청부를 주어서 수수료만 받아서 시수입에 충당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로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이익과 수수료 정도에 의존한다고 하여도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서 아직 회사측으로부터 2억에 대한 자금 여하의 확답이 없으므로 어찌할 것인가?

- 또한 거시적으로 기존 청과물 업자들을 총망라하여 주식 제도로 한다든지 3가지 중에서 한가지라도 명백히 하여 주시고 또는 우리 시민에게 염가로 메기고 회사측에서 수수료를 주고 한다면 그의 수수료 정도로서는 회사측에다가 맡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 그렇지 않으면 목포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거시적으로 주원을 만들어서 청과물을 시민에게 염가로 제공하여 주고 시민의 감세 등을 할 것인가, 또는 회사측에 맡겨놓고 이익을 지불토록 할 것인가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허가장 내용을 본다면 금월 16일부터 개업하도록 허가장에 조건이 붙었으니 물론 이날은 개업을 하게되면 도나 중앙에서도 알게 하여야 할 것이며, 기일내에 개업도 하여야 될 가장 중대한 문제이므로 산업분과위원회에서는 오늘도 회의를 한 모양인데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알 수 없으니 그 내용을 들어 보기로 합시다.

◇진 복 춘 의원

- 청과물 도매시장 관계에 있어서는 과반부터 위원회를 소집코자 1차나 2차도 유회하고, 또 오늘도 회합을 하였으나 결과를 보지 못해 내일 또 추진위원회가 있다 하니 더 신중히 토의하여서 다음 의회 때 결과를 보고 할 것

을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와 재청이요 하는 이 있음)

◎ 단기4285(1952)년도 동정세 추가개정 예산에 관한 건

◇정 응 표 의원

- 이 문제에 관하여서는 내무분과위원회에 대체적으로 삭감을 한 모양인데 어떠한 방법과 이유로써 삭감하였는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진 복 춘 의원

- 개의합니다.
- 사무 당국은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내무분과위원회에서 3천만원에 가까운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켰으므로 이대로 통과함이 어떨까요?

◇정 응 표 의원

- 진복춘 의원 말씀대로 그대로 통과할 것을 찬성합니다.
- 그런데 조건부로 통과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 그것은 일부 동에서 징병, 징용이 나오면 비용을 임대자들에게서 징수하는 모양인데 예산안이 통과되면 차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그렇게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의장 유 정 두

- 그럼 가부를 묻겠습니다. 원안대로 전원 가결하였습니다.

◎ 시유재산 처분에 관한 건

◇진 복 춘 의원

- 시유재산 처분에 관하여서는 행정부에 일임하기로 합시다.

◇총무과장 조 운 용

- 6.25 사변 전에 인천항에서 중고품으로 인증하고 수선하여서 사용하기로

하고 매입하였던 바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 침몰되어 수중에 있으므로 이를 처분하여 시재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정 응 표 의원

- 사유재산을 처분하기로 하되, 처분 방법은 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도록 행 정부에 일임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그림 가부를 묻겠습니다.
- 재석의원 14명 중 가 1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정 응 표 의원

- 전반에 건설과에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공동수도시설을 하기 위하여 예산이 선 모양인데 이 수도시설은 언제나 될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 운 용

- 곧 설계를 하라고 하였으니 아마도 2월 상순까지는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임 일 남 의원

- 목포시하고 정병조 간의 사건에 관하여서 총무과장의 내용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총무과장 조 운 용

- 설명내용 생략함

◇의장 유 정 두

-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간섭함은 곤란하오니 간접적으로 교섭하는데 의장과 의원이 절충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 폐회 선언하다.

(오후 3시 10분)